

이영규본 <거창가>의 서지와 내용 *

김도형 (전북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내용 구성 및 주요 이본과의 비교 |
| 2. 서지 사항과 표기 특징 |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전북에서 새로 발굴된 이영규본 <거창가>의 서지 사항과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영규본 <거창가>는 가로 14cm, 세로 22cm의 필사본이다. 전체 21장 42쪽인데 첫 장과 마지막 두 장은 일부가 손상된 상태이다. 책 본문은 한 쪽에 10행씩 2단으로 총 20구가 적혀 있다. 필사 시기는 본문 말미의 ‘경진년(庚辰年) 11월’이라는 기록으로 볼 때 1880년 이후로 추정된다. 문헌의 표기(表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였는데 한자 어휘 중에 한자를 잘못 기록한 경우가 있고 달아 놓은 한자음이 틀린 경우가 있다. 둘째, 글자나 단어를 추가하거나 교정한 경우가 있다. 셋째, 수정한 구절이 있다. 넷째, 19세기 전라도 방언이 사용되었다. 이영규본 <거창가>도 다른 이본과 마찬가지로 앞의 <태평가> 부분과 뒤의 ‘원 <거창가>’ 부분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본 갈래에서 문불서양(問佛西洋) - 청주목사(淸州牧使) 계통에 속한다. 주요 이본들과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이영규본과 가장 가까운 이본은 거창 현지에서 필사된 김현구본이다. 이영규본은 전체가 834구로 되어 있어서 김현구본과 분량이 일치한다. 또 내용 구성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문화과학예술연구소 가을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도 동일하고 일부 구절에서만 서로 차이가 있다. 동일 계통의 이본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어 향후 전파 경로와 이본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거창가, 필사본 이본, 현실비판가사, 전라방언, 19세기

1. 머리말

〈거창가〉는 조선 말기 수령과 아전들의 가렴주구를 고발한 대표적인 가사 작품으로 김준영¹⁾과 김일근²⁾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진경환에 의해 〈거창가〉와 〈정읍군 민란시여항청요〉가 이본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고³⁾ 일부 이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조규익에 의해 12종의 이본 대조와 「거창부폐장초(居昌府弊狀抄)」 분석 등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⁵⁾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까지 10여 개의 이본이 확인되었지만 아직 〈거창가〉 원본이라고 할 만한 이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전파 현황이나 경로 등에 대해서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학계에 소개하는 이영규 본 〈거창가〉는 전북에서 발견된 새로운 이본이기 때문에 〈거창가〉의 전파 현황이나 동학농민혁명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본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추후 〈거창가〉 연구의 토대를

1) 김준영, 「井邑郡 民亂時 閭巷 聽謠」, 『국어국문학』 29, 국어국문학회, 1965.

2) 김일근, 「歌詞 『居昌歌』 (一名 漢陽歌)」, 『국어국문학』 39-40, 국어국문학회, 1968.

3) 진경환, 「〈居昌歌〉와 〈井邑郡民亂時閭巷聽謠〉의 관계」, 『어문논집』 27, 안암어문학회, 1987.

4)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판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0; 이재식, 「〈거창가〉 이본고」, 『어문연구』 9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8.

5) 조규익, 『봉건시대 민중의 저항과 고발문학』, 월인, 2000; 조규익, 『〈거창가〉 체대로 읽기』, 학고방, 2017.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서지 정보, 내용 구성, 다른 주요 이본들과의 비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이후의 본격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서지 사항과 표기 특징

이영규본 <거창가>는 원래 책에 제목이 없다. 소장자가 제공한 복사본에 ‘거창읍가(居昌邑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책의 내용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기존 연구에서 자료를 발굴한 사람 혹은 소장자의 이름을 반영하여 이본을 명명하였으므로 우선 ‘이영규본 <거창가>’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영규(李永圭) 씨는 1936년 생(生)으로 현재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전직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평소 고서와 골동품 수집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이전에 학계에 소개되었던 실전(失傳) 판소리 <강릉매화타령> 소장자이기도 하다. 이영규본 <거창가>는 소장자의 외가를 통해 전래 것으로 어머니 최관임(崔判任, 1900-1988) 씨가 집에서 보시던 책 중의 하나라고 한다.⁶⁾ 외할아버지 최승범⁷⁾은 남원에 살았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말년에 진안군 백운면으로 출가한 큰딸 최관임에게 와서 의탁하였다고 한다. 학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최학자(崔學者)라고 했고 임실, 진안 등지에서 서당 훈장을 했

6) 소장자의 기억이 100% 확실한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 고서는 크게 네 경로를 통해 수집된 것이라고 한다. 첫째는 진안군 성수면 산수동에서 서당을 운영했던 정씨(丁氏) 훈장의 책을 그의 아들을 통해 입수하였고, 둘째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를 통해 외가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셋째는 장수군 장계면에서 있는 문진사(文進士)라고 부르는 집에서 입수한 것이고, 넷째는 장수군 천천면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송씨(宋氏)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7)全州崔氏로 威靖公派의 시조인 崔七夕(?~1394)의 자손이라고 한다. 효자표창문과 족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분실된 상태이어서 정확한 생몰연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고 한다. 또 소지(所志)를 잘 써서 소송에서 매번 이겼기 때문에 최소지(崔所志)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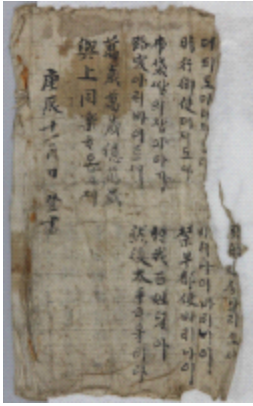
이영규본 <거창가>는 가로 14cm, 세로 22cm의 필사본(筆寫本)이다. 장정(裝幀)은 상단과 하단에 약 2.5cm 간격으로 두 개씩의 구멍을 뚫어 한지로 만든 종이끈을 이용하여 묶었다. 장정 방식이 고서의 일반적인 선장(線裝)과 다른 비전문가의 솜씨이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1장 42쪽인데 첫 장과 마지막 두 장은 일부가 손상된 상태이다. 앞뒤 종이끈으로 묶은 부분에 표지의 일부로 보이는 종잇조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23장으로 구성된 책으로 생각된다. 맨 앞 책을 묶는 곳에 남아 있는 종이 조각에 ‘庚辰十一月’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기록은 뒤에 나오는 작성 시기와 일치한다. 맨 뒷장 책을 묶는 곳에도 책 뒷표지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본 <거창가>의 작성 시기는 맨 마지막 장에 관련 정보가 있다. 본문을 적은 말미에 ‘庚辰十一月 日 登書’라고 기록되어 있다. 경진년(庚辰年)은 본문의 19세기 전라방언 사용을 판단 기준으로 볼 때 1880년으로 추정된다.⁸⁾

‘登書’는 ‘登’을 우선 사전에 있는 ‘등재하다’라는 의미로 풀이하면, 가창 혹은 암송의 방식으로 전승되던 것을 책에 기록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다른 용례에서는 ‘인쇄를 목적으로 타인의 글을 원본이 되는 책에 옮겨 적는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⁹⁾ ‘登梓用淨書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필사 시기를 밝힌 <거창가>의 다른 이본인 조규익본¹⁰⁾에서는 ‘丙子重陽 栗支抄刊’

8) 현존 이영규본 <거창가> 텍스트가 1880년 당시에 필사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경진년이 1940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해주신 조규익 교수님은 1900년 즈음으로 추정하였다.

9) 『일성록』 정조 2년 무술(1778) 2월 10일(신축) 성정각(誠正閣)에서 승지 홍국영(洪國榮)을 소견하였다. ○ 홍국영이 아뢰기를, “《속명의록(續明義錄)》은 이미 정서(正書)하였습니다. 대신의 차자를 등서(登書)해야 하는데 아직 차자를 올리지 않아 인쇄하는 일이 조금 늦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됩니다.” 하였다. 장 : 召見承旨洪國榮于誠正閣. 목 : 國榮曰. 續明義錄. 已爲正書. 大臣劄子. 當爲登書. 而尙未進筭. 故印役差遲. 誠爲可悶.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10) 처음에 이현조본A로 학계에 소개되었으나 텍스트가 조규익 교수에게 양도되면서 조규익본으로 개칭되었다.



이영규본 <거창가> 42쪽

이라고 했고 박순호본에서는 ‘歲在癸酉二月二十六日 良村書堂始贍’이라고 했다. ‘抄刊’이라는 용어는 ‘책을 펴냈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抄’는 현재에는 원본의 일부를 간추려 기록한다는 ‘抄錄’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책을 펴내는 방식인 ‘筆寫’를 ‘抄’로 목판이나 활자를 이용한 ‘刊印’을 ‘刊’으로 대표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¹¹⁾ ‘始贍’이라는 용어는 해당 일자에 책을 베끼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¹²⁾ 이영규본에서 사용된 ‘登書’는 ‘贍書’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다. 필사본이므로 ‘베끼다’라는 한자가 더 적절하고 이

영규본 <거창가>의 본문에도 한자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책 본문은 한 쪽에 10행씩 상하 2단으로 총 20구가 적혀 있다. 맨 마지막 장은 예외적으로 상단에 8행 하단에 6행이 적혀 있다. 한 구를 한 행으로 구성하였고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2구를 쓰고 아래쪽으로 중간에 여백을 둔 다음 하단에 3·4구를 적었고 왼쪽 옆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식으로 적어 나갔다. 자체(字體)는 전체적으로 반듯하여 해서(楷書)에 가까운데 한글 ‘ㄱ’은 궁체(宮體)에 가깝다. 반듯하고 유려한 필체로 보아 여성의 글씨일 가능성이 있고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적은 것이다.

이영규본 <거창가>의 표기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적었다. 대체로 한자어 단어를 한자로 표기하고 조사

11) 조규익본(776구)과 내용면에서 일치하는 임기중본(773구)이 존재하는데 두 이본과 내용면에서 가장 풍부한 김현구본(834)·이영규본(834)을 상호 비교하였을 때 이를 초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12) 1891년에 작성된 문헌인 『荷齋日記』 12월 기사에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다. 주명화(朱明化)네 집에《육도(六韜)》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빌려서 처음 4장 반을 등초(贍抄)하고, 밤에《옥린몽》을 보다가 닭이 운 뒤에 돌아왔다.(朱明化家 有六韜云 故借得始贍四張半 夜看玉麟夢 鷄鳴後歸來) 한국고전종합DB.

나 용언은 한글로 표기하였는데 ‘日산’, ‘일落黃昏’ 등과 같이 한자어 중에서 일부 음절만을 한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음절은 한글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작품의 앞부분은 한자 어휘에 다시 한글로 음을 병기해 놓았는데 대체로 어려운 한자들이다. 총 42쪽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25쪽까지만 주요 한자 어휘가 사용된 구절의 위쪽이나 측면 여백에 한글 음을 달아 놓았다. 주로 <태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글 음을 달아 놓은 것은 현존 <거창가>에서 <태평가>에 해당하는 앞 부분이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¹³⁾ 부차적인 부분이었지만 후대로 전승되면서 오히려 한자 학습자들에게 교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초 기록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초학자가 한자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새로 써 넣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글씨체가 다르고 서툴게 보이기 때문이다. 또 약자나 이체자로 쓴 한자가 있고, ‘可[가]’, ‘果[과]’, ‘不誨[불쌩]’ 등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둘째, 한자 어휘 중에 한자를 잘못 기록한 경우가 있고 달아 놓은 한자음이 틀린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떡라수(汨羅水)를 ‘汨羅水’로, 비단(非但)을 ‘飛但’으로, 奎章閣을 ‘朱章閣’으로, 가포(價布)를 ‘假布’로 기록한 것을 들 수 있다. ‘兩班內庭突入하야’에 ‘양번니정지’라고 한자음을 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突’자가 정자가 아닌 이체자 ‘宀+火’로 표기되어 있어서 ‘災’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의 독음 오류는 다른 원인도 있다. 19세기와 현행 맞춤법의 표기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지역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임의(任意)를 ‘임이’로 표기한 경우는 방언의 영향이다. ‘放債’에 ‘빚치’로, ‘路傍’에 ‘비’로 독음을 달아 놓았고 ‘徵出’에 ‘징’이 아닌 ‘질’로 적혀 있다.

셋째, 글자를 추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① 원래 ‘九里開구버니’로 표기되어 있는 곳의 ‘머’와 ‘니’ 사이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옆에 ‘보’가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있다.(⇒九里開구버보니) ② 원래 ‘阿大잇닷말가’로 표기

13) 육민수, 「〈거창가(居昌歌)〉 서술(敘述) 구조(構造)의 특성」, 『어문연구』 33, 2005에서 거창 현실을 보고하는 후반부에서 태평성대의 구가를 말하는 전반부로 옮겨가며 향유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되어 있는 곳의 ‘大’와 ‘잇’ 사이에 ‘夫’가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있다.(⇒阿大夫잇닷말가) ③ ‘我東諸大賢도’로 표기되어 있는 곳의 ‘東’과 ‘諸’ 사이에 ‘方’이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있다.(⇒我東方諸大賢도) ④ ‘너도흔人類어든’의 ‘도’와 ‘흔’ 사이에 ‘또’가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있다.(⇒너도또흔 人類어든)

넷째, 수정(교정)한 글자와 단어가 있다. 예를 들면, ① ‘戰國時’라고 적은 것의 ‘國時’를 지우고 ‘必勝’을 작은 글씨로 옆에 적어 넣었다. 기록한 것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교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春秋’를 ‘舉行’으로 수정하였다. 앞의 구절을 반복하여 ‘春秋이自泉흐다’라고 적은 뒤에 ‘春秋’를 ‘舉行’으로 수정하였다. 이것은 옮겨 적는 과정에서 행을 잘못 보고 기록했다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맥이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수정한 구절이 있다. 예를 들면, ① 처음에 ‘我東方諸大賢도’라고 적은 것을 동그라미를 글자 주위에 만들어 지우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그나문七十二賢’을 적어 놓았다. 다음 구절을 잘못하여 먼저 적은 경우이다. ② ‘力拔山楚霸王은’이라고 적은 것을 글자 주위를 둘러싼 선을 만들어 지우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黃山細雨지폰中의’를 적어 놓았다. 다음 구절을 잘못하여 먼저 적은 경우이다. ③ ‘莫風暴雨 山峽개울’의 ‘風暴雨山峽개울’을 글자 주위를 둘러싼 선을 만들어 지우고 옆에 작은 글씨로 ‘莫重흔會滅祭需’라고 다시 적었다. 옆의 다음 행에 있는 부분을 잘못 보고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책을 보고 그대로 베낀 것인지 아니면 암송하고 있던 것을 글로 기록한 것인지는 ①~③의 잘못 적은 구절의 내용이 앞뒤에 있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지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면 원본이 되는 책을 옆에 놓고 보면서 베끼다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암송했던 노래를 기록한 뒤 이것이 다시 베껴져서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파의 전(全) 과정에서는 구비전승과 전사(轉寫)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단어의 일부 음절만을 한자로 표기하거나 고유어인 조사를 한자로 표기한 것은 구비전승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혹은 한글본을 전사하는 과정에

서 기록자가 개입한 흔적이다. 글자를 추가하거나 단어를 수정한 경우는 구비전승이나 전사의 과정에서 모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구절을 수정한 경우는 전사 과정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필사의 대상이 된 원본이 있었고 이것을 보고 텍스트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대조하는 단계를 거쳤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존 이영규본 <거창가>는 임사본(臨寫本)이자 중사본(重寫本)¹⁴이라고 볼 수 있고 앞의 경진년(1880년)은 원본이 최초 기록된 시기일 수도 있고 현존 텍스트가 필사된 시기일 수도 있다. 필사 시기에 대해서는 방언 표기 등 다른 요소를 더 살펴봐야 한다.

여섯째, 19세기 전라도 방언이 사용되었다. 이영규본에서 사용된 어휘를 거창 현지에서 필사된 김현구본, 진북 정읍에서 필사된 김준영본과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구본은 필사자인 김완현(金完鉉)의 생몰연대(1841~1902)로 볼 때 19세기 후반에 필사되었을 것이고, 김준영본은 필사자인 손락회(孫樂會)의 생몰연대(1867~1943)로 볼 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필사되었을 것이다.

- 214 세아리니 - 212 세아리이 - 209 세아리니
- 779 세아아이 - 779 세아리면 - 763 헤아리니
- 417 넘모르게 - 421 남모려게 - 401 남모르게
- 431 진년개년 - 435 진논지논 - 415 짓난개난
- 449 집픈밤과 - 451 기푼밤과 - 433 깊은밤과
- 457 진진밤의 - 459 차온밤의 - 441 깊은밤의
- 503 물을지러 - 505 물을지어 - 487 물을길어
- 635 쓰년거슨 - 637 씨난거시 - 619 씨난것이
- 636 드년거슨 - 638 드난거시 - 620 드난것이¹⁵)

14)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06, 128~132쪽.

15) 이본들 간의 해당 구절의 유무와 순서 등을 파악하기 쉽게 기존 연구(조규익)를 따라 구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김현구본과 김준영본은 조규익의 앞의 책에 실린 원문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이영규본과 김현구본은 ‘세아리니’와 ‘세아리이’로 표기된 반면 김준영본은 ‘세아리니’라고 표기되어 있다. 또 앞의 두 이본은 뒤에서 동일하게 ‘세아이이’와 ‘세아리면’로 표기되어 있는데 김준영본은 ‘헤아리니’로 동일한 어휘를 다르게 표기하여 과도기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 이본에 비해 김준영본이 현대어에 훨씬 가까운 표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⁶⁾

타인을 의미하는 ‘남’을 ‘뉘’로 표기한 것은 전라도 방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지만¹⁷⁾ ‘깊은’을 ‘집뉘’으로, ‘긴긴’을 ‘진진’으로, ‘길어’를 ‘지리’로 표기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ㄱ’을 ‘ㄷ’으로 발음하는 구개음화는 전라도 방언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는 19세기 초기인 1826년 임실에서 작성된 자료인 『수운정비회유록(睡雲亭悲懷遺錄)』과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⁸⁾ 또 ‘진년개년’, ‘쓰년거슨’, ‘드년거슨’에서와 같이 현대어의 어미 ‘느’이 ‘년’으로 표기된 것도 전라도 방언, 특히 전북방언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¹⁹⁾ 이영규본에 있는 ‘진년개년’, ‘쓰년거슨’, ‘드년거슨’은 김현구본을 통해 경상도 지역인 거창에서는 대조적으로 ‘년’이나 ‘난’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기에 전라방언에서 이미 ‘·’의 음소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지만 표기는 이후 1933년 맞춤법 통일안 제정 시까지 지속된다. ‘·’는 일반적으로 첫 음절에서 ‘ㅏ’로 둘째 음절에서는 ‘ㅑ’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가 ‘ㅑ’로 변화된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수운정비회유록(睡雲亭悲懷遺錄)』과 완판본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방언 표기로 볼 때 앞서 언급한 경진년이 1940년이 될 수는 없다.

16) 이영규본과 김현구본에는 아래아(·)가 사용된 반면 김준영본에는 아래아 표기가 전혀 없다. 김준영본은 원래 한글본인데 연구자가 전제(轉載)하면서 일부를 한자로 바꾸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고쳤다. 하지만 고어(古語)나 방언(方言)은 그대로 두었다고 밝혔다. 김준영, 앞의 논문, 130쪽.

17) 강원, 경기, 경상, 전라 등지에서 두루 사용된다.

18) 백두현, 「19세기 초기 전라방언 자료 『수운정비회유록』 연구」, 『한국문화』 5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77~79쪽; 최전승,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1992, 300~305쪽.

19) 최전승, 위의 책, 40~42쪽.

20) 백두현, 앞의 논문, 83~84쪽; 최전승, 위의 책, 112~113쪽.

김준영본에 비해 이영규본이 앞선 시기에 필사된 것이 확실하고 이영규본과 김현구본은 방언사용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표기법에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덧붙여 이영규본 〈거창가〉는 19세기 전라방언, 범위를 좀 더 한정하면 전북방언 연구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3. 내용 구성 및 주요 이본과의 비교

이영규본 〈거창가〉의 내용은 다른 이본의 ‘현 〈거창가〉’와 마찬가지로 크게 앞의 〈태평가〉²¹⁾ 부분과 뒤의 ‘원 〈거창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²²⁾ 현재까지 소개된 〈거창가〉의 이본은 13개이다.²³⁾ 여기에 이영규본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학계에 소개된 〈거창가〉는 총 14개가 된다. 이영규본은 전체가 834구로 되어 있어서 일단 김현구본과 분량이 일치한다. 기존 이본 중에서 김현구본과 동일한 길이이자 가장 많은 분량이다. 동일한 분량의 이본이 두 개 존재하고 있는 점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힘들다. 만약 두 이본 사이에 유사성이 깊다면 동일한 원본에서 파생되어 서로 다른 지역으로 유포된 이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영규본은 전북에서 김현구본은 거창 현지에서 발굴된 이본이라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먼저 두 이본의 내용 구성을 비교하는 과정이 선

21) 연구자에 따라 〈한양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서로 상반되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을 이어주는 공통분모가 ‘태평(太平)이므로 〈태평가〉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2) ‘현 〈거창가〉’는 현재 대부분의 이본들처럼 〈태평가〉가 앞부분에 덧붙여 있는 것을 말하고 ‘원 〈거창가〉’는 ‘현 〈거창가〉’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임술민란에 즈음하여 형성된 지방 관리들의 탐학을 고발한 현실 비판의 가사만을 의미한다. 조규익, 『봉건시대 민중의 저항과 고발문학』, 월인, 2000, 25~31쪽.

23) 조규익, 『봉건시대 민중의 저항과 고발문학』(월인, 2000)에서 12개의 이본들에 대한 분석과 이본들 간의 계통이 밝혀졌고 그 이후에 동일 연구자에 의해 명남본C 〈娥林別曲〉가 학계에 소개되었다. 필자의 이본 비교는 조규익의 이본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결되어야 할 것이다. 김준영본은 전북 정읍에서 필사된 이본으로 전체가 769구이다. <거창가>의 전라도 지역 전과 경로와 양상을 살피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이본이다. 떡남본C는 거창 현지에서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본으로 전체가 800구이다. 김현구본과 유사점이 많고 관련 자료인 <거창부폐장(居昌府弊狀)>, <취옹정기(取翁亭記)>, <사곡서(四哭序)>가 같이 붙어 있어서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²⁴⁾ 조규익본은 전라도 담양 부근에서 1876년에 필사된 이본으로 전체 776구이다. <거창부폐장초(居昌府弊狀抄)>, <취옹정기>, <사곡서>가 같이 붙어 있는 원본에 가까운 이본으로 평가된다.²⁵⁾ 김현구본과 떡남본C는 한글로 표기되었고 조규익본과 이영규본은 한글과 학문이 혼용되었다. 따라서 이본 비교는 김현구본, 김준영본, 떡남본C, 조규익본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여타의 이본들까지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원 <거창가>는 내용 구성이 <거창부폐장>과 밀접하므로 <거창부폐장>에서 언급된 항목 및 순서와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영규본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현구본은 ‘서사-問佛西洋-1폐(還穀)-4폐(放債)-2폐(結還)-3폐(軍政)-2통(婦女冤死)-1통(濫杖)-6폐(遮日)-大小茶啖-1원(牛政)-2원(面任冤徵)-5폐(倉役租)-환상분급시 광대놀음-추입대폐(學宮弊端, 鄕校祭物橫頷)-淸州牧使移拜-결사로 구성되어 있다.²⁶⁾ 이영규본 <거창가>도 이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두 이본 간의 약간의 차이점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기존 연구에서 ‘문불서양(問佛西洋)’이라는 구절의 유무가 1차적으로 이본들을 크게 둘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었다.²⁷⁾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영

24) 조규익, 「원본에 가까운 또 하나의 <거창가> 선본(善本) - 떡남본 <娥林別曲>에 대하여」, 『한국문학과 예술』 18,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6, 376~377쪽.

25) 조규익, 『봉건시대 민중의 저항과 고발문학』, 월인, 2000, 49~51쪽.

26) 조규익, 위의 책, 80~81쪽.

27) 조규익, 위의 책, 77~90쪽. 해당 부분은 핵심어가 ‘문불서양(問佛西洋)’으로 민정(民情)을 살피러 온 관찰사가 수령이나 아전들의 간접적인 보고만 믿는 실정을 ‘부처를 서양에 묻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사와 본사 사이에 위치하여 작품의 주제를 표출하는 동시에 해당 구절의 유무가 이본들의 계열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규본 <거창가>의 경우에 본문에 해당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문불서양계’ 이 본군에 포함된다.

349 於我世上 使臣임네	350 우리居昌 弊端보소
351 在家 날려은후의	352 원간弊端 지어내되
353 九重宮闕 멀고머러	354 일련民情 모로시고
355 澄清閣 노픈집의	356 觀風察俗 우리巡相
357 呂報만 俊信흐니	358 問佛西京 안닐넌가

다만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불서양(問佛西羊)’이 아니라 ‘문불서경(問佛西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전과 과정에서 ‘서양(西洋)’을 ‘서경(西京)’으로 오인한 결과로 생각된다.²⁸⁾ ‘서경(西京)’이라는 어휘를 제외하고는 ‘문불서양계’에 속하는 다른 이본들과 해당 부분의 단락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더라도 같은 계통에 속하는 이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이본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불서양계 이본군 : 김준영본, 류탁일본A, 김일근본A, 박순호본, 연세대본,
김현구본, 이현조본B, 청낭결본, 창악대강본, 소창본,
떡남본C, 이영규본

비문불서양계 이본군 : 조규익본, 김일근본B, 임기중본

다음으로 ‘문불서양계’에 속하는 이본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내용적 기준이 ‘청주목사 이배’에 관한 내용의 유무이고 이를 기준으로 ‘청주목사계’와 ‘비청주목사계’로 나뉜다.²⁹⁾ 청주목사로 이배된 사실이 들어 있는 이본은 김현구본, 청낭결본, 떡남본C인데 이영규본 <거창가>도 ‘청주목사계’에 속한다. 해당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 청낭결본의 경우 ‘文不施行 안일넌가’로 되어 있다.

29) 조규익, 앞의 책, 79~80쪽.

781 九重千里 멀(고짚어)	782 民間疾苦 알질업고
783 虐民貪財 하여다가	784 事上하기 일삼으니
785 阿大夫의 질리미라	786 淸州牧使 移拜로쇠
787 不詳하다 淸州百姓	788 네고을도 不詳토다 ³⁰⁾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청주목사계’에 속하는 이본들 중에 청남결본, 떡남본C, 이영규본은 일부 어휘와 표기를 제외하고 내용이 일치하는데 김현구본은 이와 조금 다르다.

781 철니구중 집고집퍼	782 민간질고 알길업다
783 아티우 괴운인가	784 청주목사 이비로쇠
785 학민탐지 흐어다가	786 사상헤키 일삼으이
787 불상타 청주빅성	788 네의골도 불항하 ³¹⁾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이본은 ‘虐民貪財 하여다가 事上하기 일삼으니’의 순서가 다르고 이로 인해 의미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는 거창에서 가림주구를 하여 중앙의 권력자에게 상납하는 것을 일삼다가 청주목사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소행을 청주에서도 할 것이므로 청주의 백성들도 불쌍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청주목사로 옮겨간 이후에 가림주구를 하여 중앙의 권력자에게 상납하는 것을 일삼으니 청주의 백성들도 불행하게 되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虐民貪財 하여다가 事上하기 일삼으니’라는 구가 청주목사 이배(移拜)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전자는 가림주구를 통해 상납하는 행위가 거창에서, 후자는 청주에서 행해졌다는 의미가 되었다. 두 경우 모두 내용 전개에 무리는 없다.

위의 두 가지 기준 외에 이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처음과 끝부분의 ‘감탄사’와 ‘호소하는 대상’도 가능하다. 이영규본 거창가의 처음 구는 ‘於我親舊

30) ‘(고짚어)’는 손상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른 이본을 참고하여 추측한 것이다. ‘不詳’은 ‘(不祥)’의 오기(誤記)이다.

31) 조규익, 앞의 책, 291쪽.

변림덜으³²⁾로 시작된다. 이본들 중에서 감탄사를 ‘於我’로 표기한 유일한 경우이다. 다른 이본들은 대부분 ‘어와’로 표기되어 있고 류탁일본A와 연세대본은 ‘어화’로 소창본은 ‘語話’로 표기되어 있다. 감탄사 다음에 호소하는 대상이 이영규본과 마찬가지로 ‘친구’와 ‘벗’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는 경우는 김준영본, 류탁일본A, 박순호본, 김현구본, 연세대본, 소창본, 청낭결본, 떡남본C 등이고 김일근본A만 유일하게 ‘세상’과 ‘사람’이 이어진다.

처음 구에서 사용된 감탄사와 이어지는 호소의 대상은 작품이 끝나는 부분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³³⁾ 조규익본과 임기중본의 경우 처음과 끝나는 부분이 모두 ‘어와 百姓들야’로 되어 있다. 이와 다르게 처음과 끝나는 부분이 다른 이본은 4개이다. 이영규본은 ‘於我親舊 변림덜으’와 ‘於我 百姓덜야’로 청낭결본은 ‘어와촌구 벗잇더들’과 ‘어와탐탐 百姓더라’로 김현구본은 ‘어와親舊 벗임에야’와 ‘어화 빅성드라’로 떡남본C는 ‘어와친구 벗임네야와 ‘어아 빅성덜야’로 되어 있다. 앞에서 ‘문불서양계’의 ‘청주목사계’에 속했던 이본들인 김현구본, 청낭결본, 떡남본C, 이영규본과 같다.

마지막 구도 이본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조규익본과 임기중본은 ‘輿民同樂 호오리라’로 김현구본 ‘여중동낙 하오리라’로 떡남본C는 ‘여중동낙 호올리라’로 되어 있다. 조규익본과 임기중본³⁴⁾, 김현구본과 떡남본C³⁵⁾는 각각 동일계통의 이본일 가능성이 높다. 청낭결본은 ‘輿人同樂 하올이랴’로 이영규본은 ‘輿上同樂 호옵고저’로 되어 있어서 다른 이본들과 확실하게 구분된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본들 간의 계통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2) 앞의 서지 정보에서 밝힌 것처럼 원본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가창(歌唱)되는 상황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3·4조 혹은 4·4조로 띄어쓰기를 하였다.

33) 완결된 형태의 온전한 작품인 경우를 말한다.

34) 조규익, 앞의 책, 90~91쪽에서 두 이본이 한자 표기나 철자법 일부만 틀리고 분량·내용·구조 등이 거의 같다는 점을 근거로 동일 계통의 이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35) 조규익, 「원본에 가까운 또 하나의 <거창가> 선본(善本) - 떡남본 <娥林別曲>에 대하여」, 『한국문학과 예술』 18,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6, 379쪽에서 마지막 부분 ‘여중동락’이 두 이본들에서만 보인다는 점을 들어 떡남본C도 김현구본과 마찬가지로 거창 현지에서 만들어진 이본으로 추정하였다.

문불서양계	청주목사계 (首尾相異)	김현구본(여중동락), 먹남본C(여중동락) 이영규본(여상동락), 청남결본(여인동락)
	비청주목사계 (未完)	김준영본, 류탁일본A, 김일근본A. 박순호본, 연세대본, 이현조본B, 장악대강본, 소장본
비문불서양계	여민동락계 (首尾相同)	조규익본, 임기중본
	(未完)	김일근본B

앞의 이본 계통 구분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영규본이 포함된 청주목사계에 속하는 이본들 중에서 청남결본은 전체 길이가 424구여서 나머지 세 작품들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328구까지가 <태평가>여서 전반부의 분량은 동일하지만 후반부 <거창가> 부분이 대폭 축약되었다. 우선 이영규본과 김현구본, 먹남본C 사이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정읍에서 필사된 김준영본과의 상호대조도 필요하다. 조규익본은 다른 이본군에 속하지만 원본에 가까운 의미 있는 이본이므로 해당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태평가> 부분을 포함하여 이영규본을 중심으로 이본들 간의 내용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⁶⁾

[1]

이영규본(101~106)	김현구본(101~104)	김준영본(101~104)	먹남본C(101~104)	조규익본(91~96)
道不拾遺 軒中の 葛天世界 時節인가 龍山三開 모든배논 黃帝軒轅 지은배논 九里開 구버보니 神農氏 遺業이며	도불십유 軒中풍속 갈천세계 시절인가	道不拾遺 하난風俗 葛天世界 時節인가	도불십유 하난풍속 갈천세계 시절이라	道不拾遺 軒中風俗 葛天世界 時節인가 龍山三可 모든배은 黃帝軒轅 지은비오 求理기 구워보니 神農氏의 遺業이요

36) 가장 먼저 이영규본과 김현구본의 모든 구절을 비교하였고 그 다음으로 먹남본C, 김준영본도 전체를 대조하였다. 조규익본은 네 가지 이본에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 같이 검토하였다. 상호대조는 내용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어절 수의 차이, 어휘 사용의 차이, 방언사용으로 인한 차이, 맞춤법 적용 여부에 따른 표기방식의 차이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영규본에 있는 ‘龍山三開 모든배는 黃帝軒轅 지은배오’라는 구절이 김현구본, 김영준본, 떡남본C에 없고 조규익본에는 있다. 삽입 여부가 전체 내용 전개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이영규본(127~134)	김현구본(125~132)	김준영본(125~132)	떡남본C(125~132)	조규익본(117~124)
我東方 諸大賢도 차례로 侍衛함이 <u>뵈</u> 하고 <u>巨</u> 錄하다 우이朝鮮 衣冠文物 小中華라 이븐말삼 이제와 이븐바라 太祖大王 聖德으로 四百餘年 날러오며	아동방 제덕현도 차여로 승무흔니 소중화라 이븐말삼 이제와 아로미라 티도덕왕 성덕으로 사빅어연 나러오며 우리조선 의관문물 <u>장</u> 하고 <u>거</u> 록하다	我東方 諸大賢도 차례로 陞庶하니 장하고 거록하다 우이朝鮮 衣冠文物 小中華라 이븐말삼 이제와 알리로다 太祖大王 聖德으로 四百餘年 내러오며	아동방 제덕현도 차례로 상무흔이 장하고 거록하다 우리조선 의관문물 소중화라 이븐말삼 이제와 알리로다 티조덕왕 성덕으로 사빅어연 나러오며	我東方 諸大賢도 次例로 陞庶흔니 장하고 거록하다 우이朝鮮 衣冠文物 小中華라 이븐말삼 이제와 이난베라 太祖大王 聖德으로 四百餘年 나러오며

이영규본과 김준영본, 떡남본C, 조규익본은 내용과 순서가 일치하고 있는 반면 김현구본은 ‘우리조선 의관문물 장하고 거록하다’라는 구의 위치가 다르다. 또 김현구본은 다른 이본들과 비교할 때 해당 구의 순서가 앞뒤로 바뀌었다. 하지만 내용 전개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경우는 전승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작은 오류이므로 특별한 구별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이영규본(149~150)	김현구본(145~146)	김준영본(147~149)	떡남본C(143~148)	조규익본(135~138)
湯武의 聖德으로 征伐 잇서시며 그나문 鼠竊狗偷 엇지다 기록홀라 원수네라 甲午年 冬至十三日이 원수네라	탕무의 성덕으로 정벌이 잇서시며 원술네라 갑오연 동지십삼일 원수네라 그나문 서절구투 <u>엇지다 기록홀리</u>	湯武의 聖德으로 征伐이 잇었으니 그나문 鼠竊狗偷 어찌다 記錄할가 <u>원수로다 원수로다</u> 甲午年 동짓달 <u>十三日이 원수로다</u>	탕무의 성덕으로 정벌이 잇세시며 그나문 서절구투 엇지다 기록홀리 원수네라 갑오연이 동지십삼 원수네라	그나문 鼠竊狗偷 엇지다 기록홀리 怨讐네라 甲午年の 冬至月이 怨讐네라

이영규본과 떡남본C는 내용과 순서가 일치한다. 김현구본은 ‘그나문 서절구투 엇지다 기록홀리’라는 구절의 위치가 다른 이본들과 상이하다. 김준영본은 ‘원수로다 원수로다 甲午年 동짓달 十三日이 원수로다’라는 부분이 다른

이본들에 비해 한 구가 늘어났고 조규익본은 ‘湯武의 聖德으로 征伐이 있었으니’라는 부분이 빠져있다.

[4]

이영규본(159~170)	김현구본(157~168)	김준영본(158~169)	떡남본C(157~160)	조규익본(147~154)
垂簾聽政 ㅎ신후의 八域이 安然하다 <u>道光十七 辛丑年의</u> <u>우이聖上 卽位하사</u> <u>春秋方盛 十五歲의</u> <u>漢昭帝의 聰明이며</u> <u>周成王 어린인君</u> <u>八百年 基業이라</u> <u>우리殿下 어리시되</u> <u>八千歲나 바라난이</u> 昨年도 豊年이요 今年도 豊年이라	수렴청정 ㅎ신후로 팔역니 완연하다 도광삼십 신축연의 우리성상 직위하사 춘추방성 십오세의 한소제의 총명이오 주성왕 어린인군 팔백년 기업니라 우리전하 어리시되 팔천세나 바라느니 장연도 풍연이요 금연도 풍연니라	垂簾聽政 하신후의 八域이 晏然하다 道光三七 辛丑年의 우리聖上 卽位하사 春秋方盛 十五歲의 漢昭帝의 聰明이며 周成王 어린인군 八百年 基業이라 우리殿下 어리시되 八千歲나 바라나니 去年도 豊年이요 今年도 豊年이라	수렴청정 ㅎ신후의 팔역이 안연하다 작연도 풍연이요 금연도 풍연이라	垂簾攝政 ㅎ신후의 八域이 晏然하다 道光三七 辛丑年의 우이聖上 卽位하스 春秋方盛 十五歲에 漢昭帝의 聰明이라 昨年の도 豊年이요 今年の도 豊年이라

이영규본과 김현구본, 김준영본에 비해 떡남본C는 여덟 구가 조규익본은 네 구가 빠져 있다. 도광(道光) 17년은 정유년(丁酉年)이고 신축년(辛丑年)은 도광 21년인 1841년이다. 이 해 1월 10일부터 헌종의 친정(親政)이 시작되었고 본문의 내용은 이에 대한 송축이다. 떡남본C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 이본의 초본(初本)이 역사적 사실이 일어나기 이전에 작성되었거나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일 것이다. 떡남본C는 이재가가 청주목사로 이배된 사실이 들어 있는 청주목사계에 속하는데 이재가가 청주목사로 이배된 시기가 1941년 하반기이므로 필사자가 헌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

[5]

이영규본(181~196)	김현구본(179~194)	김준영본(180~191)	떡남본C(171~186)	조규익본(163~176)
長安靑樓 少年들이 挾彈飛鷹 홀린니와 <u>太平曲 擊壤歌을</u> <u>이내노래 드러보소</u> <u>어제靑春 오날白髮</u> 네덜안이 모를소냐	장안청누 소연드라 협탄비을 하려니와 창희닐속 우리인상 후혜흔들 어니홀리 장덕에 고은개집 네솔조타 자랑마라	長安靑春 少年들이 挾彈飛鷹 하려니와 太平曲 擊壤歌을 이내노래 드러보소 어제靑春 오날白髮 넌들아니 모를소냐	장안청누 소연들이 성탄비을 하려니와 타평곡 격양가을 이내노래 들어보소 <u>장덕에 고은개집</u> 넌덜안이 물을손야	長安靑樓 少年들이 어서어서 놀다가즈 이러한 太平聖世에 아니놀고 무엇홀리 어제靑春 오날白髮 넌들아니 물을손야

滄海一粟 울리人生 後悔흔덜 어이홀이 章殆의 고흔계집 네꽃조타 자랄마라 西山의 지는해을 뉘라서 禁홀소야 東海의 흐른물은 다시오기 어려와라 뒤東山 지난꽃선 明年三月 다시피되	선산의 지난혁을 뉘라서 금홀손야 동희의 흐은물니 다시오기 어려와라 <u>뒤평곡 격양가을</u> <u>니니로리 드리보소</u> <u>어제청춘 오날백발</u> <u>넬들아니 몰을손야</u> 뫼동산의 지난꽃은 명연삼월 다시피되	滄海一粟 우리人生 後悔한들 어이하리 東海로 흐른물이 다시오기 어렵도다 뫼동산 지난꽃은 明年三月 다시피되	창희일숙 우리인성 후회흔덜 어이홀리 <u>화방의 고은낭자</u> <u>네꽃조타 자랄마라</u> 서산의 지난혁을 뉘라서 홀홀손야 동희에 홀은물리 다시되기 어려와라 뫼동산 지난꽃진 명연삼월 다시피되	滄海一粟 우리人生 後悔한들 어이홀이 粧臺의 고은계집 네꽃도타 자랄마라 西山의 지는혁을 뉘라서 금홀손야 東海의 흐른물이 다시오기 어려워라
---	--	--	---	--

이영규본과 김현구본은 내용은 같고 ‘太平曲 擊壤歌을 이내노래 드리보소 어제青春 오날白髮 네덜안이 모를소냐’라는 네 구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김준영본은 ‘章殆의 고흔계집 네꽃조타 자랄마라 西山의 지는해을 뉘라서 禁홀소야’라는 네 구가 빠졌고 떡남본C는 두 구의 내용이 다르고 구의 순서도 다르다. 조규익본은 이영규본과 비교할 때 앞의 여섯 구의 내용이 다르고, ‘뒤東山 지난꽃선 明年三月 다시피되’부터 시작하여 이후에 열 구가 없다. 조규익본이 다른 계통에 속하는 이본임이 드러난다.

[6]

이영규본(213~220)	김현구본(211~218)	김준영본(208~214)	떡남본C(203~210)	조규익본(185~190)
그나문 古來英雄 논는시 세아리니 統一天下 秦始皇 阿房宮 事廊삼고 萬里城 短牆삼마 <u>億萬歲 비겨서라</u> 六國諸侯 朝貢호고 三天宮女 侍衛홀제	그나문 고리영웅 낫낫지 세아리이 동일친하 진시황 아방궁 사랑삼고 말이성 단장삼아 억만세 비겨서라 육국제후 조공호고 삼천궁여 시위홀제	그남은 古代英雄 날날이 세아리니 統一天下 秦始皇은 阿房宮 자랑하고 萬里長城 短牆삼마 六國諸侯 朝貢하고 三天宮女 侍衛할제	그나문 고리영웅 낫낫지 세알인이 동일친호 진시황은 아방궁 사랑삼고 말이장성 담을싸야 억만세 비겨서라 육국제후 조공호고 삼천궁여 시위중에	統一天下 秦始皇은 阿房宮 사랑삼고 萬里長城 담장삼고 億萬歲 비겨서서 六國諸侯 朝貢호고 三天宮女 侍衛할제

이영규본, 김현구본, 떡남본C는 내용이 일치하는데 김준영본은中间的 ‘億萬歲 비겨서라’라는 한 구가 빠졌다. 두 구씩 짝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서술 경향이기 때문이다. 조규익본은 앞부분의 ‘그나문 古來英雄 논는시 세아리니’라는 두 구가 없다.

[7]

이영규본(263~272)	김현구본(261~270)	김준영본(257~266)	떡남본C(253~262)	조규익본(231~242)
力拔山 楚霸王은 天下壯士 일너지되 時不利兮 騶不逝의 八千兵 훗터지고 虞美人의 손을잡고 눈물로 하직하며 烏江風浪 愁雲中の 七十餘戰 가소롭다 運籌帷幄 張子房과 東南風비던 諸葛孔明	역발산 초피왕은 천하장사 날너지되 시불이 추불서혜 팔천병 헛터지고 위미인 손목잡고 누물로 흐직하며 오강풍낭 수운중의 칠십여전 가소로다 운유유악 장자방과 동남풍 제갈공명	力拔山 楚霸王도 天下壯士 일렀으되 時不利 騶不逝의 八千兵 흠어지니 虞美人 손목잡고 눈물로 下直하고 烏江風浪 수운중의 七十餘戰 可笑롭다 運籌帷幄 張子房과 東南風 諸葛孔明	역발산 초피왕은 천하장사 일너지되 <u>오강낭풍 수운중의</u> <u>칠십여전 가소롭다</u> 시불이혜 추불서혜 팔천병 헛터지고 우미인 손목잡아 눈물로 흐직하며 운유유악 장자방과 동남풍 제갈공명	力拔山 楚霸王은 天下壯士 일너지되 八千兵 훗터지고 時不利兮 騶不逝라 虞美人의 손목잡고 누물로 흐직하니 <u>丈夫一寸 肝腸은</u> <u>굽이굽이 다눅나다</u> 烏江風浪 秋雨中的 七十餘戰 可笑롭다 運籌帷幄 張子房과 東南風 諸葛孔明

이영규본과 김현구본, 김준영본은 내용과 순서가 일치하고 떡남본C는 중간에 구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 조규익본은 구의 순서가 다르고 중간에 다른 이본에는 없는 ‘丈夫一寸 肝腸은 굽이굽이 다눅나다’라는 두 구가 추가되었다.

[8]

이영규본(279~284)	김현구본(277~282)	김준영본(273~276)	떡남본C(269~274)	조규익본(249~254)
第一文章 이엇만는 長生不死 못흐여엇고 獨行千里 關雲將은 名振天下 흐엿서라 巨擘하다 明燭達朝 千秋凜凜 뿐이로다	제일문장 날년말노 장성불사 문하야인고 독형칠니 관운장은 명진천하 히야씨라 거록하다 명촉달조 천추늬늬 뿐이로쇠	第一文章 이엇만은 長生不死 하엿어라	제일문장 인너지되 장성불사 못흐엿고 독형칠이 관운장은 명진천하 흐여씨라 거록하다 명촉달조 천추늬늬 뿐이로쇠	第一文章 일너지되 長生不死 못흐앗고 獨行千里 關雲將은 名振天下 흐여서라 <u>장하다 明燭達朝</u> 千秋의 寂寞하다

이영규본, 김현구본, 떡남본C는 내용이 일치하는데 김준영본은 중간의 ‘獨行千里 關雲將은 名振天下 흐엿서라’라는 두 구가 빠졌다. 조규익본은 ‘장하다 明燭達朝 千秋의 寂寞하다’라는 부분이 다른 이본들과 달리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9]

이영규본(311~314)	김현구본(309~312)	김준영본(303~307)	떡남본C(269~274)	조규익본(277~280)
玉態花容 고은낭자 塵土中の 무치잇서	옥태화용 고은영자 진인등의 무치잇고	玉態花容 고은얼골 塵埃中の 묻혀잇어	옥태화용 고은양자 진인중의 무치잇씨	玉態花容 고은닥장 塵埃中の 무치잇서

秋雨梧桐 落葉時の 靈魂이 실피울며	츠투오동 업낙시의 영혼이 실피울고	春風桃李 花開夜와 秋雨梧桐 落葉時の 靈魂이 슬피울고	츠투오동 업낙시에 영혼이 실피울고	秋雨梧桐 落葉時 靈魂이 실피운다
-----------------------	-----------------------	------------------------------------	-----------------------	----------------------

이영규본, 김현구본, 떡남본C, 조규익본은 내용이 일치하는데 김준영본은
중간의 ‘春風桃李 花開夜와’라는 한 구가 추가되었다.

[10]

이영규본(325~328)	김현구본(323~332)	김준영본(318~327)	떡남본C(315~324)	조규익본(289~298)
天地도 開關하고 日月도 晦明커던	천지도 기백하고 일월도 회명커던 <u>하물며 우리인성</u> <u>천말연 장성하라</u> <u>춘화홍 추업낙의</u> <u>세월이 덧었느니</u> <u>이러한 티평성세</u> <u>아니로든 못하리라</u>	天地도 開關하고 日月도 晦明커던 하물며 우리人生 千萬年 長生하리 春花紅秋落葉의 歲月이 덧었난되 이러한 太平歲의 아니늘고 무엇하리	천지가 기백하고 일월도 회명커던 하물며 우리인성 천말연 장성하라 춘화홍 추업낙의 이러한 티평성세 아니로든 못하리라	天地가 至大호되 흔번開關 이서논이 하말며 올이人生 <u>흔번죽업 면힐쇼나</u> 春花紅 秋葉落에 歲月이 덧(업)서라 이러한 太平聖世에 아니늘고 무엇하라 <u>이렇저렇 잘호風物</u> <u>莫非聖上 德化로다</u>
朝鮮三百 二十八州 꽃곳마다 太平이되	조선삼백 육십일주 간곳마다 티평이되	朝鮮八百 二十八州 간곳마다 太平이되	조선삼백 이십팔주 간곳마다 티평이라	

<태평가>의 마지막 부분이자 원 <거창가>의 시작부분이다. 앞뒤의 상이한
내용을 서로 연결한 부분이므로 이본 계열이나 작가 의식을 살피는 데 중요
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현구본과 김준영본, 떡남본C는 내용과 순서가 일
치하는데 이영규본에는 중간의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여섯 구가 없다. 전체적
인 서술의 흐름을 보면, 앞에서 인생무상에 대해 말하고 지금을 태평성세로
인식하면서 현세의 즐거움을 누리자 내용이다. 이영규본에 이 부분이 빠진
것은 내용이 전사자의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았거나 당시의 시대 상황이 태평
성대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³⁷⁾ 조규익본은 마지막 구절의 내용

37) 1880년 즈음은 안으로는 세도정치로 인해 삼정이 문란하여 전국적으로 농민항쟁
이 지속되고 밖으로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후 본격적인 문호개방이 시도되었
던 시기였다. 제2차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받아와서 고종이 이 책을 전국의 유생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로 인해 위정척사
운동이 촉발되었다. 1881년에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흥선대원군의 서장자인 이재
선을 옹립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역모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과 표현이 다르다. 이영규본과 일치하는 이본으로는 청낭결본이 유일하고 조규익본은 임기중본, 연세대본, 류탁일본A와 유사하다. 김현구본,떡남본C, 김준영본과 같은 이본에는 김일근본A, 소창본, 이현조본B가 있다.

[11]

이영규본(359~368)	김현구본(363~372)	김준영본(358~361)	떡남본C(355~364)	조규익본(319~328)
吏奴浦 萬餘石을 百姓이 무삼罪고 四戈式 分給하고 全石으로 물러너어 數千石 逋飲아전 미흔캐도 안이치고 斗升穀 아니밧고 百姓만 물러너니 大典通編 條目中의 일련법이 잇단말가	이포 만여석을 백성이 무삼죄고 너둔식 분식하고 전석으로 물우너어 수천석 포음아전 미흔기 안이치고 승두곡 물이잔코 백성만 물에너이 대전통편 도목중의 일련법 잇단말가	吏奴浦 萬餘石은 百姓이 무삼죄고	이로포 만여석을 백성이 무삼죄로 너둔식 분급하고 전석으로 물어너어 수천석 포음아전 미흔기 안이치고 승홉곡 물인잔코 백성만 물어너이 대전통편 조목중의 일련법이 잇단말가	吏奴布 万餘石을 百姓이 무삼죄고 四畿式 分給하고 全石으로 물너너니 數千石 逋欠衙前 미흔기 아니치고 斗升穀 물이잔코 百姓만 물너너니 大典通編 條目中의 이련법이 잇단말가

이영규본, 김현구본, 떡남본C, 조규익본은 내용이 같은데 김준영본은 중간의 '四戈式 分給하고 全石으로 물러너어 數千石 逋飲아전 미흔캐도 안이치고 斗升穀 아니밧고 百姓만 물러너니'라는 여섯 구가 빠졌다.

[12]

이영규본(387~404)	김현구본(391~408)	김준영본(380~388)	떡남본C(383~396)	조규익본(347~362)
他邑은 十一二兩 民間의 出秩하면 居昌은 十六七兩 年年의 加徵하니 他邑도 木上納을 戶曹惠廳 밧자하고 本邑도 木上納을 戶曹惠廳 밧자하니 다갓튼 王民으로 王稅를 갓치하며 엇지타 우리고을은 二三兩式 加徵하야 더구나 冤痛홀사 白沙의 結卜이라 近來 落江成川 如山갓치 식어너더	타읍은 열한두냥 미간의 출秩하며 본읍도 목상납의 호조혜청 밧지하니 다갓탄 왕민으로 왕세를 가지하며 본읍은 십육칠양 열열이 가정하니 타읍도 목상납의 호조혜청 밧제하고 엇다타 우리골은 두석양식 가증하타 더구나 원통홀스 백사장의 결복니리 글너의 성천포락 구손갓치 싸인난대	他邑은 열한두냥 民間의 出秩하면 井邑은 열六七兩 年年의 加徵한다 他邑도 木上納을 戶曹惠廳 밧제하고 本邑도 木上納을 戶曹惠廳 밧제하니	타읍은 열한두양 민간의 출질하며 거창은 십육칠양 연연이 가정하이 다갓튼 왕민으로 왕세를 갓치하며 엇지타 우리고을 이삼양식 가정하어 더구나 원통할사 백사장의 결복이라 글너에 성천포락 구산갓치 싸어너더	他邑은 十一二兩 民間의 出秩하되 本邑은 十五六兩 年年의 加徵하니 他邑도 木上納에 戶曹惠廳 밧지하고 다갓튼 王民으로 王稅를 갓치하며 엇지타 우리골은 二三兩式 加徵하며 더구나 冤痛홀사 白沙場의 結卜이라 近來의 落江成川 邱山갓치 식어너더

切痛하다 울리百姓 災한집도 못먹어라	절통타 인니벽성 지흔집도 못먹어라	절통타 우리벽성 지한집을 못먹어라	불상하다 이너百姓 災흔집 못먹어라
------------------------	-----------------------	-----------------------	-----------------------

이영규본과 김현구본은 내용은 같은데 구의 배치 순서가 다르다. 김준영본과 떡남본은 이영규본과 비교할 때 내용 전개는 같지만 중간에 각각 아홉 구와 네 구가 없고 조규익본은 이영규본과 내용은 같지만 중간에 ‘本邑도 木上 納의 戶曹惠廳 밧자흐니’라는 두 구절이 없다. 내용 전개와 두 구씩 짝을 이룬 것을 볼 때 이영규본이 내용도 풍부하고 보다 완결된 형태로 판단된다.

[13]

이영규본(435~452)	김현구본(439~454)	김준영본(419~436)	떡남본C(427~444)	조규익본(389~396)
一身兩役 冤痛中の 黃口簽丁 可憐하다 荒山古塚 路傍강尸 내身世가 不祥하다 너주근대 멧히관대 假布돈이 어인일고 生民假布 더저두고 白骨微布 무삼일고 官門암피 저송장은 죽기도 설름씨던	일신양역 원통중의 항골혼절 가련하다 심민가포 더저두고 빅골중포 무삼일고 황산고통 노방강시 네의신세 불상하가 너죽은제 멧히관대 가포돈 어인말고	一身兩役 冤痛중의 黃狗忠情 가련하다 生民가포 더저두고 白骨微布 무삼일고 荒山古塚 路傍僵尸 네身勢가 불상하다 너죽은제 멧헤관대 가포돈이 어인일고 官門앞에 저송장은 신사도 冤痛커든	일신양역 원통현중 황구충절 가련하다 산가포는 더저두고 빅골중포 무삼일고 황산고통 노방강시 너의신세 불상하다 너주근대 멧히관대 가포돈이 어인일고 관문암피 저송장은 죽기도 설업거던	불상하다 저百姓도 너우름 淒涼하다 너죽은제 멧히관대 白骨微布 무삼일고 月落參橫 김푼밤 天陰雨濕 저문날의 冤痛하다 우는소리 스람肝腸 다눕는다
죽근송장 다시피서 白骨暴陽 虛浪하다 假布脫題 冤情홀제 呼舍호야 쫓차니니 月落三更 김푼밤과 天陰雨濕 실픈밤의 冤痛타고 우는소리 東軒타고 함기운다	죽근송장 다시피서 빅골포양 처양하다 가포탈 서원정을 호령하여 쫓차니니 월락삼경 기푼밤과 천음우심 실픈밤의 원통타 우는소리 동원던골 함기운다	죽근송장 다시피서 白骨微布 더욱쉽다 가포탈할 제冤情을 號舍호야 쫓아내니 月落三更 깊은밤과 天陰雨濕 슬픈밤의 冤痛타 우는소리 東軒大空 함께운다	죽근송장 다시피서 빅골폭양 처량하다 가포번 저원정을 호령하여 쫓차니니 월낙삼경 실가흔이 천음우심 김푼밤의 원통타 우는소리 동원던골 함기운다	

이영규본과 김현구본은 중간 ‘生民假布 더저두고 白骨微布 무삼일고’라는 두 구의 배치 순서가 다르고 내용은 같다. 다만 이영규본에 비해 김현구본에 빠진 부분이 두 구가 있다. 김현구본과 떡남본C는 김현구본에 ‘官門암피 저송장은 죽기도 설름씨던’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과 순서가 같다. 김준영본과 떡남본C는 내용과 순서가 같다. 이영규본과 김준영본·떡남본C는 두 구의 배치 순서가 다르지만 모두 내용 전개상 별 무리는 없다. 네 이본은 ‘黃

口簽丁’, ‘항골훈정’, ‘黃狗忠情’ 등 어휘 사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白骨徽布’와의 연관을 고려하면 이영규본의 ‘黃口簽丁’이 맞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부분도 ‘동헌에(을) 대고(향하여) 함께 운다’는 의미이므로 이영규본의 표기가 정확하다. 이영규본과 다른 이본들을 상호 대조하면 개별 이본의 오류를 보다 쉽게 교정할 수 있다. 조규익본이 다른 세 이본과 다른 계통의 이본임이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내용과 순서가 다르고 열 구가 빠져서 분량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백골징포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은 상통한다.

[14]

이영규본(521~526)	김현구본(523~528)	김준영본(505~510)	떡남본C(513~516)	조규익본(459~464)
五六人 되여시니 그積窶이 어찌매요 不祥 ^하 다 저鬼神 ^아 可憐 ^하 다 저鬼神 ^아 龍泉劍 빗겨들고 日傘압취 前陪 ^신 니	오육인 되야시니 그積窶이 어찌홀고 불상 ^하 다 저귀신 ^아 가연 ^하 다 저귀신 ^아 요금검 빗겨들고 일산압취 전벽 ^서 며	五六人 되었으니 그積窶이 어찌한고 불상 ^하 다 저귀신 ^아 可憐 ^하 다 저귀신 ^아 龍泉劍 빗겨들고 日傘압취 前陪 ^서 며	오륙인 죽어쨌이 그積窶이 어찌된요 용천검 빗겨들고 일산압취 전벽 ^서 며	五六人 되야시니 그積窶이 가련 ^하 다 불상 ^하 다 저鬼神 ^아 可憐 ^하 다 저鬼神 ^아 쇠방땡이 두러매고 日傘압취 前輩 ^호 니

이영규본과 김현구본, 김준영본은 서로 내용과 순서가 일치한다. 떡남본C는 ‘不祥^하다 저鬼神^아 가憐^하다 저鬼神^아’ 두 구가 빠졌다. 조규익본은 내용에서 다른 이본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영규본의 ‘前陪’는 ‘前陪’의 오기이다.

[15]

이영규본(597~608)	김현구본(599~610)	김준영본(581~592)	떡남본C(587~598)	조규익본(549~560)
百姓의 절가농우 엇지타 아사다가 奴令輩 내어주어 소임지로 일케호니 農家の 極 ^호 보배 空然 ^이 일탄말가 옛太守 公事 ^호 을 自細 ^히 드러보소 큰칼팔라 큰소사고 저근칼로 송치사여 百姓으로 勸農 ^호 니 일런治政 엇저홀고	백성의 절가농우 엇지타 아사다가 로영비 너여주워 소임지로 일케호니 옛티수 공사하물 자세히 드러보소 큰칼팔라 큰소사고 저근칼로 송치사여 농가의 극한보배 평연 ^이 일탄말가 백성으로 원통 ^호 니 이런치정 엇저홀고	百姓의 折脚農牛 엇저다 앓아다가 奴令輩 내어주어 소임자로 잃게하니 農家の 극한보배 공연 ^히 일탄말가 옛太守 公事 ^함 을 자세히 들어보소 큰칼팔라 큰소사고 적은칼로 송치사서 百姓으로 勸農 ^호 니 그런治政 어찌하고	백성의 절가농우 엇지타 아사다가 노령비 너여주워 쇠임지로 일케호니 농가의 극한보배 공연 ^이 일탄말가 옛티수 공사함을 자세히 들어보소 큰칼팔라 큰소사고 저근칼로 송치사서 백성으로 권농 ^호 니 이런치정 엇저할고	百姓의 折脚農牛 엇지타 아스들어 官屬輩 너여주어 牛肉으로 永失 ^호 니 農家の 極 ^호 보배 空然 ^이 일탄말가 예太守의 公事 ^호 를 즈세이 드러보소 큰칼팔라 큰소스고 자근칼노 송치스며 百姓으로 勸農 ^호 니 이런治政 엇저홀고

이영규본과 김준영본, 떡남본C는 내용이 일치한다. 김현구본은 ‘農家の 極
 흔보배 空然이 일탄말가’라는 구의 위치가 다른 이본들과 상이하다. 내용 전
 개상 이영규본, 김준영본, 떡남본C가 맞다. 이를 조규익본과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해 진다. ‘官屬輩 니여주어 牛肉으로 永失히니’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구를 배치한 순서와 내용은 이영규본, 김준영본, 떡남본C와 같다.

[16]

이영규본(629~632)	김현구본(631~634)	김준영본(613~616)	떡남본C(619~624)	조규익본(577~580)
六房下人 房索흔은 閻羅國의 鬼卒갓다	늑방하인 토식흔문 염내국의 귀돌갓다	六房下人 討索흔은 閻羅國의 鬼卒인가	육방하인 토삭흔미 염니국의 귀졸갓다 본관이 음전흔여 빅성이 허터지네	六房下人 討索흔문 閻羅國의 鬼卒갓다
秋霜갓튼 저호릉과 鐵石갓튼 저주먹을	추상갓튼 저호릉과 철석갓튼 저주모를	秋霜갈안 저호릉과 鐵石갈안 저주먹을	추상갓튼 저호릉과 철석갓튼 저주먹을	秋霜갓튼 저號승과 鐵石갓튼 저주먹을

나머지 이본들과 비교할 때 떡남본C에만 ‘본관이 음전흔여 빅성이 허터지
 네’라는 두 구가 있다. 이영규본은 ‘房索’은 ‘討索’의 오기이다.

[17]

이영규본(641~656)	김현구본(643~656)	김준영본(625~640)	떡남본C(633~646)	조규익본(589~604)
④不受櫻防 박켜시미 倉色利食 업다하여 ②倉役租 열말나라 古今の 업든弊端 ①이런弊端 不足다고 또흔弊端 지어내되 ③昨年吏逋 收刷後의 結還으로 分給히니 每結의 열말나라 法外의 加斂히니 本邑元結 세아리니 三千六百 餘結이요 열말락 收合히니 二千四百 餘石이라 年年二千 四百石을 白板으로 徵民히니	일언페단 부족다고 또흔페단 지어니되 청역도 열말나라 고금의 업논페단 죽연이포 수쇄하여 결환으로 분급이요 불수계방 미케시이 충식이식 업다하여 민결의 열말나라 범박기 가영하이 본읍원결 세알이니 습천육빅 예결이요 열말나라 세알이니 이천승빅 여석이라	이런弊端 不足타고 또한弊端 지어내니 창역조 열말나라 古今の 업난弊端 昨年吏逋 收刷후의 결환으로 分給하여 不受計方 땀겼으니 창색利殖 없다하고 每結에 열말나라 法밖에 加徵한다 本邑原結 세아리니 三千六百 餘結이요 열말나라 收合하니 二千三百 餘石이라 年年이 二千三百餘石 백판으로 徵民한다	이런퍼단 부족다고 또흔퍼단 지어니니 창역조 열말라락 고금에 업네퍼단 작연포환 수쇄후의 결환으로 분급흔이 불수계방 고리한정 창식이식 업다하여 민결의 열말라락 범박기 가림하네 열말나라 수합흔이 삼천육빅 여결이요 연연 이천사빅석을 백판으로 정민흔이	이런弊端 不足짜고 또흔弊端 지어니되 倉役租 十斗나라 古今の 업든弊端 昨年吏逋 收刷후의 結還으로 分給히니 倉色吏 利食업다 역정이 실습되여 한덕의 十斗나라 제법으로 加斂히니 本邑元結 세아린적 三千六百 餘結이요 十年나라 收合히니 三千四百 餘石이라 年年 三千四百石을 白板으로 徵民히니

이영규본은 다른 이본들과 앞부분 네 구의 순서가 다르다. 김준영본을 참

京試불제 學館弊端 지여니니'로 축약되었는데 이영규본과 내용 서술 순서가 같다.

[19]

이영규본(781~834)	김현구본(781~834)	김준영본(765~769)	떡남본C(747~800)	조규익(723~776)
九重千里 멀(고깊어) 民間疾苦 알걸업고 虐民貪財 하여다가 事上하기 일삼으니 阿大夫의 질리미라 淸州牧使 移拜로써 不詳하다 淸州百姓 네고을도 不詳토다 789 ... 830 於我 百姓달아 然後太平 호을리라 萬歲萬歲 億萬歲 與上同樂 호을고저	철니구중 집고집퍼 민간질고 알걸업다 아타우 괴운인가 청주목사 이비로써 학민탐지 하여다가 사상헝기 일삼은이 불상타 청주빅성 네의골도 불헝하다 789 ... 830 어화 빅성드라 연후의 태평세기라 만세만세 억만세의 여중동락 하오리라	千里九重 멀고깊어 民間疾痛 알걸업고 澄清閣 우리巡相 邑報만 遵信하니 문불서양 아닐런가	철이구중 집고집퍼 민간질고 할걸업다 학민탐지 호여다가 울이기만 일삼은이 아타부의 고클음인가 청주목사 이비로써 불상타 청주빅성 네의골도 불헝하다 755 ... 796 어아 빅성달아 연후의 티평세계 만만세세 억만세에 여중동락 호을리라	九重千里 멀고머러 이런民情 모르신다 凶惡하다 李芳佑야 不測하다 李芳佑야 727 ... 772 어와 百姓들아 萬歲萬歲 億萬歲로 然後의 太平世界 與民同樂 호오리라

청주목사계에 속하는 이영규본, 김현구본, 떡남본C는 이재가가 청주목사 이배된 사실이 들어 있고 비청주목사계에 속하는 김준영본과 조규익본에는 청주목사 이배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이영규본과 떡남본C는 앞부분의 내용과 배치 순서가 서로 일치하는데 김현구본은 내용은 같지만 구의 배치 순서가 다르다. 김준영본은 766구 다음에 갑자기 앞의 354구에서357구까지 나온 내용을 반복하면서 끝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비교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영규본(834)	김현구본(834)	김준영본(769)	떡남본C(800)	조규익본(776)
1		2구 누락	2구 누락	2구 누락	
2		2구 순서 오류			
3		2구 순서 오류	1구 추가		2구 누락
4				8구 누락	4구 누락
5		4구 순서 오류	4구 누락	1구 내용 상이, 2구 순서 오류	6구 내용 상이, 10구 누락
6			1구 누락		2구 누락
7				2구 순서 오류	2구 추가
8			2구 누락		2구 내용 상이
9			1구 추가		
10	6구 누락				3구 내용 상이
11			6구 누락		
12		4구 순서 오류	9구 누락	4구 누락	2구 누락
13		2구 순서 오류		2구 순서 오류	3구 내용 상이

		2구 누락			10구 누락
14				2구 누락	1구 내용 상이
15		2구 순서 오류			2구 내용 상이
16				2구 추가	
17	4구 순서 오류	2구 누락		2구 누락	1구 내용 상이
18		2구 순서 오류		24구 누락	2구 누락
19		2구 순서 오류	3구 내용 상이 49구 누락		6구 누락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영규본은 김현구본과 더불어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가장 오류가 적은 이본이다. 원본에 가까운 <거창가>가 새로 발굴된 것이다. 이영규본을 기준으로 할 때 이영규본과 가장 가까운 이본은 역시 김현구본이다. 국한문 혼용과 한글본, 방언사용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표가 방식이 유사하고 내용 구성도 거의 일치하였다. 다만 6구 정도는 서로 차이가 있고 구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있다. 김현구본과 떡남본C는 길이에서 차이가 있지만 누락된 부분을 제외하면 서로 공통점이 많다. 또 이영규본과 떡남본C, 이영규본과 조규익본이 유사한 부분도 일부 있다. 이영규본과 김준영본은 같은 전북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필사 시기와 내용 구성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본이다.

4. 맺음말

이영규본 <거창가>는 아직 <거창가>의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향후 이본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의미 있는 이본이다. 특히 기존 이본과 동일한 분량의 이본이 발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지 사항과 표기 특징으로 볼 때 1880년경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영규본 <거창가>는 문불서양계-청주목사계에 속하는 이본으로 김현구본, 떡남본C, 청날결본과 같은 계통이고 그 중에서도 김구현본, 떡남본C와 밀접한 이본이었다. 그리고 길이가 같은 김현구본을 포함한 주요 이본들과의 상호대조를 통해 이영규본 <거창가>가 이본들 중에서도 가장 내용이 풍부하

고 형식상으로도 정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작품에 대한 면밀한 내용 분석까지는 하지 못하였다. 다음 기회에 이번에 다루지 못한 다른 이본들도 자세히 살펴 지금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이본이 발견되어 <거창가>의 전파 경로와 동학농민혁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居昌歌』, 이영규본.
- 백두현, 「19세기 초기 전라방언자료 《수운정비회유록》 연구」, 『한국문화』 5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1, 65~96쪽.
- 육민수, 「〈거창가(居昌歌)〉 서술(敍述) 구조(構造)의 특성」,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31~153쪽.
- 조규익, 『봉건시대 민중의 저항과 고발문학』, 월인, 2000.
- 조규익, 『〈거창가〉 제대로 읽기』, 학교방, 2017.
- 조규익, 「원본에 가까운 또 하나의 〈거창가〉 선본(善本) - 먹남본 〈娥林別曲〉에 대하여」, 『한국문학과 예술』 18,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6, 375~447쪽.
- 조규익, 「거창 현지에서 만들어진 충실한 내용의 〈거창가〉 이본 - 김현구본 〈아림별곡〉에 대하여」, 『한국문학과 예술』 23,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 355~407쪽.
- 천혜봉, 『한국서지학』민음사, 2006.
- 최전승,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1992.

【Abstracts】

A Study on Different Manuscript Versions of
<Geochangga>

Kim, Do-Hy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bibliography and contents of different manuscript versions of <geochangga>. This <geochangga> is written in Korean paper with a width of 14cm and a length of 22cm. The first chapter and the last two chapters are partially damaged. The text of the book contains 20 words in total, with 10 lines on each side and 2 levels. The time of the transcription is estimated to be from November 1880 to the end of the t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tation of the document are as follows. First, when we mixed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there are cases where the Chinese characters are incorrectly recorded and the written Chinese characters are wrong. Second, there are cases where letters or words are added or corrected. Third, there is a modified passage. Fourth, the 19th century Jeollabuk-do dialect was used. This <geochangga> is composed of the <hanangga> part and the rear part of the previous <geochangga> as well as other different manuscript versions. It belongs to 'cheongjumogsa' system in 'moonbulseoyang'.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contents with major ones, it is Keoch'ang-pyolgok(Lee's collection of the text) which is the closest to Lee Young-gyu's copy. The total number of Lee Young-gyu is 834, which is consistent with Keoch'ang-pyolgok. The contents are the same, and only some passages are different. The same strain of different

manuscript versions will be found in other areas and will contribute to future propagation pathways and xenon studies.

Key words : 〈Geochangga〉, Different Manuscript Versions, Reality-Criticism-Gasa, Jeolla dialect, 19th century

이 논문은 2018년 0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11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11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